

# 옥천·금산·익산·안동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 대통령, 11개 지자체 소속 15곳 “응급 복구·구호 지원에 최선” 지시

초대 저출생대응 수석 유혜미 교수 초등학교 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앞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

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한시

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교 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유 수석은 “출산을 하라”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주형 기자

##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 입하지 않아도 中, 간첩 혐의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다

국가안전부, 기소 범위 포괄 적용

중국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가운데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를 입하지 않아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 워터 게iting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간첩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썼다.

국가안전부는 용의자가 고의로 외국 간첩기관이나 그들의 요원로부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는 임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간첩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혐의 기소는 용의자가 돈을 받

았거나 그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실제로 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으며, 국가 기밀과 정보의 수집·제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행위는 스파이 기관과 그들의 요원을 위해 채용을 돕거나 소개하고, 침투·전복·사보타주(파괴 공작)에 대한 지령을 받거나 오랫동안 내부 세력으로 잠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SCMP는 “이번 경고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돼 나온 것”이라며 “3중전회에서는 국가안보 시스템과 역량을 현대화하고 핵심 분야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안보를 개선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새 세대에 햇볕 넘기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며 “새로운 세대에 햇볕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국에 버려진 집 13만2000호...소유자 동의하면 정비 추진

행안부, 50억 원 들여 871호 철거

정부가 전국 13만2000호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50억 원을 들여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 은퇴 후 거처로 활용 예정 등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빈집을 방치하는 실정이다.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갈 수

있다. 이는 다시 빈집이 확산하고 지역 전체가 침체하는 상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 인천공항 주차장 빈자리 내비가 찾아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소 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 내비게이션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차 내비게이션은 주차면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주차정보와 주차 관제시스템의 실시간 주차면 상태 신호정보를 융합해 내비게이션이 주차 가능한 개별 주차면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의 주차면(주차단위구획)에 경차, 장애인, 전기차 등 주차면 정보와 주차요금상장기 등 주차 관련시설에 대한 주소 기반 위치정보를 구축해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관제시스템·주차정보의 실시간 연계와 주차장 내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단기주차장에 주차 내비게이션을 시범 적용해 올해 말까지 주소 기반 주차정보의 범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호국보훈의 달 기부물품 상이군경복지관 전달

서울보훈청, 해태제과·태극당과 협업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25일 “올해 호국보훈의 달 계기로 특별협업을 진행한 해태제과와 태극당의 기부물품을 26일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 홍보 및 감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태제과·태극당과 각각 협업을 진행했다. 해태제과의 인기과자 오에스에 보훈부 마스코트 ‘보보’와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구를 삽입한 호국보훈 특별 에디션 20만 상자를 출시해 6월 한달간 한정판매했다.

태극당은 업체의 인기상품 ‘태극식빵’

포장지에 호국보훈의 달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전 제품 국가유공자 3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해태제과의 ‘오에스 호국보훈 에디션’, 태극당의 ‘태극식빵 호국보훈의 달 프로모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물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태극당은 자사 제과 제품을, 해태제과는 상이군경의 건강증진을 위한 러닝머신을 기부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연합뉴스